

## [29] 황 병 주

황 병주선생은 충남 공주군 신상면 추계리, 현재의 유구에서 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강직하던 성품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불굴의 정신자세로 서른 다섯이 될때까지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생활을 하셨다.

그런데 그 해에 기미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나라의 주권회복을 위하여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쳤을 때 선생은 조국이 없는 백성은 존재할 수 없다는 애국심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농토를 버리고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다.

농사꾼이라면 시골에 틀어박혀서 자기의 안일만을 꾀할 수도 있는 처지였으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었으니 무엇을 겁내고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선생은 선생과 뜻을 같이하는 동지 이십삼명과 함께 내 조국을 찾겠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독립운동에 심혈을 기울이셨다.

그러나 그 독립투사들의 투철한 의지마저도 왜구의 총칼앞에서는 역부족 일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선생은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죄목으로 공주 집안관에 2년간 계셔야 했다. 그러나 그곳에 있으면서도 선생은 결코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더욱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리라 굳게 다짐하셨다.

이곳에서 나와서 계속 독립운동에 참여하던중 자신이 십 년전부터 믿어온 천도교의 교주 손 병희가 경성에서 독립운동을 꾀하다가 체포된 사실을 안 황 병주선생은 그의 뜻을 본받아 공주에서도 같은 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하였다.

때는 1919년 3월 14일 오후 4시경 바로 공주군 신상면 유구 시장의 날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회를 틈타 시장에 온 사람 약 30명에게 독립만세를 주창하여 화창하게 한 다음, 모자를 두르리고 흔들면서 만세를 절규하니 익규, 명준과 같은 독립 투사들을 비롯하여 시장에 온 사람들이 점차 이에 가세하여 그 수효가 약 500여명에 달하였다.

그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치안을 방해하므로 그곳의 일본 순사들이 이를 제지하여 두어차례 해산을 명령했지만 그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이 오히려 그들의 행렬을 더 길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이것이 소위 일인들이 말하는 보안법 위반 소요만세였다. 하다 못한 일인들은 주모자인 황 병주선생을 주재소에 인치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주재소에 몰려 와서 돌을 던지고 유리창 전등 등을 깨치며 선생의 방치를 요구하였고, 승현이라는 분은 시장에서 약 백여명의 군중에 대하여 황 병주선생을 방치시키기 위하여 주재소로 몰려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지휘하여 주재소로 몰려 왔고 연성이라는 분은 그 집단속에 있다가 술선수범하여 주재소 사무실로 들어가 순사에게 병주를 방치해야만 군중을 해산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위협하였고 준비이란 분은 순사에게 병주의 방치를 협박하면서 그의 왼쪽 가슴을 찔으며 그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술선하여 주재소에 투석하거나 몽둥이를 가지고 문 등을 파괴하였으므로 누구든지 집단의 세력을 도와 주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선생은 징역 2년을 언도 받고 또 다시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이때 벌금은 30원이라는 큰 돈이었다. 이 사건은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했다.

그 후 황 병주선생은 많은 고초와 시달림속에 사시다가 1936년에 돌아가셨다. 이때 선생의 나이는 68세였다.

그분의 묘는 현재 아산군 온양읍 법곡리 1구에 있으며 이분의 아들 황 의창씨가 법곡리에 살고 계시다.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힘이지만 그것을 모아서 일본 순사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우리 선조의 거룩하신 뜻과 자신의 인생을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바치신 황 병주선생의 자손 만대에 길이 물려야할 정신 유산과도 같은 것이다.

독립운동가 황 병주선생의 그 높은 기상은 우리 나라의 번영과 함께 영원히 빛날 것이다.